

구글의 안드로이드 LED전구

스마트홈 실현을 위한 첫 걸음

대표적인 IT기업인 구글은 기존 친환경제품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안드로이드 LED전구를 지난 5월 신제품 컨퍼런스에서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신제품은 기존의 LED전구에 원격제어기능을 탑재하여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으로 언제 어디에서도 전원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번에 생산되는 안드로이드 LED 전구는 조명기구 제조기업인 Lighting Science Group이 담당하였다. 라이팅 사이언스 그룹의 LED 조명전구는 일반전구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90%가량 적으면서 현 시장에 출시된 다른 LED제품에 비해 조명도가 더욱 밝고 고르며 특히 수은과 납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100%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또한 기존의 전구보다 16배나 더 긴 수명력을 가지고 있어 궁극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현상 또한 기대할수 있다. 구글과 Lighting Science Group두 회사의 합작으로 출시된 전구는 친환경 제품과 스마트기술의 융합 제품으로 출시와 동시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LED 전구를 시작으로 집안의 여러가지 기기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스마트홈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 LED 전구



출처 : Lighting Science Group 홈페이지

구글의 스마트홈 전략, Google@Home

Google@Home 의 첫 번째 제품으로 소개된 안드로이드 LED전구는 스마트폰 연결을 통해 전원조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집에 있지 않아도 집의 조명상태를 조절하여 에너지 조절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출 부엌에 가지 않고도 이층 침실에서 커피기기를 키거나 여행 중에도 집의 조명이나 가전제품을 조절할 수 있는 집의 자동화(Home Automation)가 바로 Google@Home 미래지향적 진로이다. 구글의 야심은 이번 LED전구 출시를 시작으로 다른 가전제품 제조업체와도 손을잡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하여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테크놀로지를 전파하는 하는 것이다.

멀지 않은 스마트홈 시대

미국은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중의 하나로서 에너지 문제의 책임을 가장 많이 짊어져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스마트 미터 프로그램 개발이다. 벌써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스마트 미터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머지않아 미국도 에너지 현대화에 한발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 미터는 에너지 프로그램을 현대화함으로써 실시간 에너지 사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한다. 이 시점에서 Google@Home 프로그램은 한발 더 나아가 에너지 사용관리를 가상 현실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K](#)

Google@Home 이미지



출처 : Techspot 잡지